

“경기침체 뚫고 꿈을 현실로 ... 다시 뛰자 경제야”

기아차·금호타이어 활기 되찾고 일자리 넘쳐나는 한해로
혁신·성장·공유로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온기 불어넣어야

새해 광주·전남 경제 희망가

기아차 광주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쏘울 부스터’가 출시 첫해, 국내외에서 25만 대 넘게 팔리며 국내 자동차 수출역사를 새로 썼다.

쏘울 부스터는 신형 쏘울의 3세대 모델로, 올 1분기 본격 출시된 이후 6개월 만에 20만대를 수출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기존 쏘울의 연간 최대 수출량(2015년 22만 2612대)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쏘울의 글로벌 판매량(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8만대)도 최단시간 내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자동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면서 쏘울 부스터의 수출 신장에 도움이 됐다.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10%, 광주 총 생산액의 32%, 총 수출액의 40%에 달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능력 증대로 곳곳에서 경제 활성화의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기아차 광주공장은 수출 물량에 맞춰 오는 2020년 50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키로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1차 협력업체 50여곳 뿐 아니라 2,3,4차 협력업체 수백곳도 추가 채용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도 지난해 노사협의로 확정했던 공장 휴무 일수를 줄이고 신차용 타이어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목포지방방만청도 늘어나는 자동차 수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장비·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전 분야에서도 활력이 감지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대우위니아 공장 등으로 전국 백색가전 생산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광주지역 600여개 학교에 에어가전(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1만대를 공급하기 위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대우위니아는 연일 특근을 진행 중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악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광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수요까지 넘쳐나면서 지역 가전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대형마트·백화점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명품 매출은 15%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9.1% 늘었다.

전남도 비슷하다. GS칼텍스가 2021년까지 2조6000억 규모로 올레핀 생산시설 투자에 들어간데다, LG화학도 여수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조6000억을 투자, NCC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지역 경제가 북적이고 있다.

지역 제조업 현장의 활력 증진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고용 통계도 올 들어서만 1%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광주는 실업률이 5.0(3월)까지 치솟으며 최악의 ‘고용 쇼크’ 상황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2월(4.0%) 이후 한 차례도 없었던 실업률 4.0%의 ‘벽’이 지난해만 4차례에 달했다.

다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새해에도 광주·전남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올해 경제성장률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수출 전선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 경기의 둔화 조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변수 투성이다. 한국경제,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그만큼 새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수없이 교차하는 기회와 위기 속에서 실낱같은 성장의 경로를 찾아내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이끌어갈 모멘텀으로 삼아 압축한 시기를 뛰어 도약해야 한다. 혁신과 개혁, 성장에 대한 공유를 통해 움츠러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민 살림살이가 달라진다.

올해 가장 듣고 싶은 경제 소식은 어떤 것일까. 지역 경제계에 오르내릴 굵직한 뉴스들을 ‘가상’으로 정리해봤다. 어두운 뉴스 대신, 희망이 담긴 소식들이다. 이러한 ‘희망사향’을 모은 가상뉴스가 헛된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것, 지역민 모두의 몫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해년, 희망과 행복 넘치기를 ... 총청남도 청양의 송조농원에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삼아 돼지들이 풀을 뜯고 있다. 광주일보의 추운 겨울밤을 보내고 언덕 너머로 떠올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태양처럼 올 한 해 광주·전남 지역민 모두의 가슴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반도 비핵화 확고한 의지 ... 남북교류 전면 확대 희망”

北 김정은 신년사 통해 밝혀 “미국 압박 땀 새로운 길 모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제재·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 등 방송을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앞으로 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할

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미 간 협상 교착상태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에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만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남 사이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양북 차림의 김 위원장은 이날 30분간 연설했으며, 단상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걸린 집무실로 보이는 장소의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읽어 내려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주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새해 특집 32면 발행

- 천년 전라도의 혼 ▶11면
- 3·1운동 100년·광주학생 90년 ▶12·13면
- 한국영화 100년 ▶14면
- 황금돼지의 해 띠풀이·운세 ▶15면
- 신춘문예 당선작 단편소설 ▶24·25면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 소설 강애영 ‘한밤중에 민서는’
- ▲ 시 강대선 ‘구름’
- ▲ 동화 이명선 ‘파랑새 시계탑’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

지역이 원하는 금융 **잔안다 잘한다**

己亥年
2019

새해 떠오르는 밝은 해처럼
희망 가득한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은행